

1950년대 혐오의 서사와 헤테로토피아의 기획

— 정비석의 『민주어족』 고찰

김 주 리*

[초 록]

1950년대 재건의 욕망을 투영하는 가운데 정비석의 『민주어족』은 부정한 세태와 구분되는 ‘다른 공간’(헤테로토피아)의 기획을 보여 준다. 현실의 대항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서 위치를 갖는 유토피아이다. 『민주어족』에서 헤테로토피아로 그려지는 곳은 중년 남성이 경영하는 민생알미눔제작소와 모자아파트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실에 대조되는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민생알미눔제작소는 과학적 배치와 직분 윤리로 경제자립의 이상이 투영된 공간이다. 성적 타락이 만연한 현실에 대조되는 모자아파트는 남성 가부장적 윤리가 여성의 일탈을 막는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이다. 민생알미눔제작소와 모자아파트는 중년남성의 봉건성을 드러내며 가부장제의 규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후반부 서사는 중년 남성의 봉건성이 가진 한계를 비판하면서 청년의 헤테로토피아를

*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주제어: 정비석, 『민주어족』, 혐오담론, 헤테로토피아, 가부장제, 청년
Bi-seok Jeong, 『A Democratic Race』, Hate Discourse, Heterotopia, Patriarchy, The Youth

보여준다. 『민주어족』이 지향하는 청년의 헤테로토피아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여성의 주체성을 담보한 점에서 가부장제의 현실에 일정하게 대항 배치된 공간이 되는 것이다.

1. 서론

1950년대 대표적인 대중소설 작가인 정비석의 신문연재소설들은 당대 사회에 대한 다양한 혐오와 비판의 담론을 보여주고 있다. 부패한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타락과 각종 이권으로 얼룩진 경제의 타락,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여성의 성적 타락을 문제 삼으며 정치 혐오와 여성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다.¹⁾ 본고는 『민주어족』(1954)을 대상으로 당대 사회에 대한 혐오가 서사에서 어떤 ‘다른 공간’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다른 공간이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과 어떻게 조응 또는 이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민주어족』은 『자유부인』에 이어 연재한 소설로 ‘자유-민주’의 의미쌍을 형성하지만 계몽성이 강한 서사로 인해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한 작품으로 평가된다.²⁾ 그런데 『민주어족』의 서사는 『자유부인』에 조응

1) 이선미는 1950년대 정비석 소설이 정치 혐오를 서사화하여 실천되지 않은 민주주의를 공문화함으로써 정치 혐오의 대중적 감수성을 비판의식으로 전환해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선미(2013), 「‘정치 혐오’의 문화적 기원과 신문소설의 여론 민주주의 — 1950년대 정비석의 신문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 3-26]. 본고는 『민주어족』에서 정치 혐오뿐 아니라 여성 혐오의 서사를 문제시함으로써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저항의 측면을 의미매김하고자 한다.

2) 정비석 대중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자유부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민주어족』은 『자유부인』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성보다 계몽성이 강한 텍스트라는 평가를 내려왔다[강진호(2000), 「전후 세대와 소설의 존재방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3, 현대문학이론학회]. 『민주어족』에 대한 연구는 정비석 소설 전반을 다루는 가운데 강력한 남성 가부장 영웅주의의 귀결을 문제시하거나[안미

하기보다는 인물관계나 설정에서 51년에 발표된 『여성전선』을 떠올리게 한다. 발랄한 직업여성 강영란을 사이에 두고 고위관리 배영환, 기술자 홍병선, 사장 박재하가 대립하는 이 소설의 구도는, 여주인공 윤옥란을 사이에 두고 은행간부 강춘배, 회사원 이상현, 약제사 전우현이 대립하는 『여성전선』과 유사하다. 자유부인 아내와 이혼하고 미망인과 재혼하는 중년남성의 서사가 펼쳐지는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여성전선』이 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의 무역회사를 배경으로 하는 반면 『민주어족』은 환도 이후 서울의 제조업사업장을 배경으로 하는 점에서, 소비가 아닌 생산 중심 재건 사회의 현실과 욕망을 투영하고 있다.

재건의 현실과 욕망을 투영하는 가운데 『민주어족』은 부정확한 세태와 구분되는 다른 공간의 기획을 보여준다. 자본을 둘러싼 협잡 가운데 ‘각하니 사장님’이 횡행하는 부패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대비해, ‘민주주의’로 호명될 수 있는 다른 공간(헤테로토피아)을 서사화하는 것이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상이한 공간들로서, 현실을 정화하는 일종의 대항 공간이며 현실에서 위치를 갖는 유토피아이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에는 특권화된 금지의 장소들에 해당하는 위기의 헤테로토피아(기숙학교나 군대), 일탈된 개인이 들어가는 일탈의 헤테로토피아(감옥과 요양소), 현실 속 환상공간을 만들어내는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매음굴),

영(2004), 「정비석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고찰」, 『개신어문연구』 21, 개신어문학회] 소비나 근로대중 등 전후 자본주의 주체 구성과정을 분석[고선희(2016), 「정비석 소설의 섹슈얼리티와 전후의 자본주의적 주체 구성」, 『한국사상과 문화』 84, 한국사상문화학회; 손혜민(2014), 「전후 ‘근로대중’의 형성과 빈곤의 젠더화 — 정비석의 『민주어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2, 한국여성문학학회; 류경동(2015), 「1950년대 정비석 소설에 나타난 소비주체의 향방 — 『자유부인』과 『민주어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31,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했던 작가의 목적을 분석[이선미(2011), 「공론장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 1950년대 신문소설과 정비석」, 『대중서사연구』 26, 대중서사학회]하는 등의 연구가 있다.

현실을 완벽하게 정돈하는 보정의 헤테로토피아(식민지) 등이 있다. 낙원으로서 유토피아가 일상에서 구현될 수 ‘없는 공간’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과 다른 욕망과 질서, 가치와 경험이 부여되는 ‘다른 공간’으로 존재한다.³⁾

『민주어족』에서 헤테로토피아로 그려지는 곳은 박재하 사장이 경영하는 민생알미늄제작소와 오창준 변호사가 경영하는 모자아파트이다. 소설에서 이들 공간은 평등과 직분윤리가 작용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간으로 이상화한다. 강영란, 강영희 자매가 각각 민생알미늄제작소와 모자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성장하거나 긍정적 변모를 나타내지만 두 공간의 지도적 위치에 중년 가부장 남성이 자리한다는 점은 이들 공간의 성격을 어떻게 가치매김할 것인지 돌아보게 한다.⁴⁾ 본고는 『민주어족』에서 구현되는 헤테로토피아가 당대의 정치나 여성 혐오와 관련된 양상을 살피고 이러한 다른 공간의 기획이 지향하는 지점에서 재건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이 여성이나 청년의 욕망과 이반하는 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민생알미늄제작소: 정치 혐오와 보정의 헤테로토피아

전후 재건의 일상을 다루는 『민주어족』의 주요배경은 비철금속으로 실생활 물품을 제조하는 알미늄 공장이다. “어디로 보나 총명하고도 발랄한 기상”⁵⁾의 세련된 여성 강영란이 무역회사 퇴사 후 민생알미늄제

3) 미셸 푸코(2014),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pp. 48-57.

4) 정종현은 1940년대에 쓰인 정비석의 소설 <청춘의 윤리>와 1950년대 『민주어족』에 파시즘의 구도가 공통으로 투입해 있다고 본다. 정종현(2008),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1940-50년대 정비석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동국대한국문화연구소.

작소에 취직하러 가는 장면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물세살의 청춘이 약동하”(5)는 주인공이 50년대 부정적인 현실사회로부터 생산기술과 산업의 ‘다른 공간’에 투입함으로써 성장하는 구도를 보이는 것이다. 성장의 배경이 되는 민생알미늄제작소는 외화보다 내실, 지위보다 직분을 중시하는 공간이다. 똑같이 직업여성의 성장서사를 보이는 『여성전선』이 전쟁 중 1951년의 “밖에는 바람이 사나운 지 창넘어로 굽어보이는 부산항구는 물결이 상당히 거칠건만, 사무실 안은 영하 오도라는 외부의 추위조차 모르는 듯이 『스팀』 기운이 훈훈한”⁶⁾ 무역회사 지미양행의 호경기를 배경으로 화려한 소비의 세계를 펼쳐놓는다면, 『민주어족』은 초라한 바라크 건물 속 기술자의 노동과 기계의 약동, 생산의 열기를 중심에 놓는다.

영란은 짧은 사원의 안내로 사장실로 걸어가면서 그들의 친절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남자들이란 짧은 여자가 사무실에 나타나면 흔히들 이상한 눈으로 힐끗힐끗 바라보는 법이건만 여기서는 그런 흥측스러운 기색이 전연 없는 것도 유쾌한 일이었다. (중략) 사장실은 사무실 한편을 판자로 막았을 뿐으로, 명색이 사장실일 따름이지, 실내장치 같은 것은 사무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11)

소설은 첫 장면부터 민생알미늄제작소가 현실과 구별되며 현실에 의의제기하는 대항공간임을 초심자 영란의 눈을 빌어 드러내고 있다. 민생알미늄제작소는 과학적 조직과 윤리적 환경으로 나타난다. 화려한 가구도, 높은 빌딩도, 위엄 있는 사무실도 없지만 모든 것이 건전하고 유쾌하다. 사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 설비는 잘 관리된다.

5) 정비석(1955), 『민주어족』, 정음사, p. 5 (본고에서 『민주어족』에 대한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이후로는 인용면수만 표시함).

6) 정비석(1952),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p. 9.

직원들은 충실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상적인 ‘다른 공간’으로서 민생알미늄제작소는 박재하라는 중년남성-기술자 영웅의 윤리에 기대어 구성된다. 오창준의 입을 빌어 “진정한 애국자라고”(28) 일컬어지는 공학기사 박재하는 단신 월남한 후 “지금도 공장 속 직실에서 육년째나, 독신생활을 하고 있”(29)으며, 서사의 끝까지 개인적 욕망보다 사업의 안정이라는 공적 욕망과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소설은 중년의 박재하를 지도자의 자리에 놓고 홍병선을 차기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등 기술자 영웅의 윤리를 강조한다.⁷⁾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실에 대조되는 보정의 공간, 헤테로토피아로서 민생알미늄제작소는 민주적 조직, 과학적 배치와 직분 윤리로 채워진 세계이다. “무릇 우리나라에서는 사장 지위에 있는 사람치고 입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실지행동에 있어서는 거의 전부가 전제적이요, 봉건적이요, 관료적이”(12)지만 이와 달리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라는 낱자를 빼어버리고 그냥 사장이라고만 부르”(15)며, 구성원은 동등하게 직무의 성실성을 요구받는다. 채용자리에서 박재하가 강영란에게 요구하는 것도 미모가 아니라 경리상 숫자의 정확성이다. 기술자 영웅의 규율과 윤리가 지배하는 민생알미늄제작소의 세계란 각자 역할에 적합한 일분자로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장치와 같다.

7) 고선희는 한국전쟁 이전의 『장미의 계절』과 『민주어족』을 대조하며 계몽주의자 영웅에서 산업영웅으로 이상적 남성상의 변모를 포착하고 있다(고선희, 앞의 논문, pp. 101-102).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지만 전쟁 중 씌어진 『여성전선』 속 연구자 영웅과의 관련성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병선은 『여성전선』의 약력사 전우현처럼 연구자의 면모를 보이는데, 전우현이 페니실린 독자기술을, 홍병선은 도금 품질을 개선한 아르마이트 제조기술을 목표로 연구한다. 전쟁 중에 씌어진 『여성전선』에서 중요한 것이 항생제라면 전후 재건 사회에서 씌어진 『민주어족』에서는 일상생활품의 자립이다.

『틀림 없는 일백 십오명이요. 게다가 그 인원수는, 현재의 공장시설로 보아서 한 사람도 뺄수 없는 인원이죠. (중략) 다시 말하면 최고능율을 목표로 과학적인 인원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근무시간중에는 누구 하나 게으름을 부릴 수도 없겠네요?』
 『물론이죠! (중략) 민주정신이란 무엇이나- 누가 나더러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근무시간중에 자기 임무를 다하는 정신이라고 대답하겠소. 그러니까 강군도 그 정신을 한번 발휘해 주시오!』
 (71-72)

누구 하나 게으름 피울 수 없도록 최적의 공간, 최적의 인원으로 과학적 배치가 이루어진 작업장과 회사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공정에서 최고의 능률을 올리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인원배치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야만 유희노력(遊休勞力)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생산(計畵生産)도 제대로 추진시킬 수 있지요.”(74) 그 공간에 투입된 100여명의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자기 임무를 다하는 것, 성실하게 노동하는 것으로 민주정신을 함양한 존재로 자리매김된다. 민생알미늄제작소는 평등하고 과학적인 공간인 동시에 경제자립의 이상이 투영된 공간이다. 현실의 원조 경제에 대항하는 자립생산 경제 기구로서 민생알미늄제작소는 사회의 동맥이 되며 직원들은 진정한 애국자로 부상한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말없이 기계만 움직이고 있는 직공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죠”(75) 생산기술의 발전이 외국에 의뢰하지 않는 독립국가의 자주정신으로 이어지며 생산기관의 발전을 통해 애국과 민주주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민생알미늄 제작소의 성격은 몇 가지 특징으로 집약된다. “첫째는 시간을 엄수하였다.”(81) “둘째는, 직원들의 보건(保健)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점이였다.”(82) “세째는 사무계통의 직원들도 모두 「벤토」를 가지고 오는 점이였다.”(83) 시간엄수와 보건위생, 검약으로 대표되는 민생알미늄제작소의

특색은 허영과 사치, 퇴폐와 나태라는 당대 현실과 대조된다. 회사에 있으면 점심시간에 누구나 라디오체조에 참가해야 하는 것, 일주일에 한번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것 등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83)이 된다. 다시 말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자기 인권에 대한 옹호, 나아가 상대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가능케 하며 검약과 시간엄수, 성실한 노동과 자립한 생활 속에 민주주의의 신념이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평등하고 성실한 노동과 보건위생, 검약의 정신을 강조하는 민생알미늬제작소의 세계와 대조되는 지점에 당대 사회의 부정성을 대변하는 배영환과 정치요인들의 세계가 자리한다. 타락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배영환에 대해 강영란은 “실태(實態)는 없는데, 관념만이 헛개비처럼 떠돌고 있으니 굳이 명명하자면 「귀족의 망령」(亡靈)이라고”(37) 단정한다.

세상이 통털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판에, 근거도 없는 귀족취미를 발휘하려는 것은 이십세기의 어릿광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배영환 같은 청년들조차 아직도 봉건시대의 귀족취미에 도취 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영란은 어쩐지 적막한 감상조차 느껴졌다.(44-45)

“민주 정신에 배반되는 또하나의 그릇된 관념”(38)으로 채워진 배영환의 인식은 당대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권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함을 반영한다. 강영란은 배영환의 ‘봉건시대의 귀족취미’에서 불쾌와 적막함조차 느낀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당대 사회에서 지식인 ‘청년들조차’ 평등의 가치를 체화하지 못하고 자본을 새로운 계급 기준으로 치부하는 모습에 영란은 그 봉건성을 비판하는 것이다.⁸⁾

배영환이 평등한 인권의 가치를 몰각한 존재로서 당대의 정치 현실을 투영한다면, 일방적으로 이권사업을 요구하는 정치요인들은 성실한 노동의 가치와 공정성이 몰각된 현실을 투영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당대의 사상 검열에 대한 작가의 혐오와 비판이 투영된 인물들이다.⁹⁾ 국회의원과 정치요인은 애국자 유가족의 생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박재하에게 대리점을 요구하지만, 그는 “아무 활동력도 없는 여자분이 대리점을 맡아보았자 공연히 남의 사업에 지장만 일으킬 뿐이지, 생활보장도 안될 것”(85)이기에 거절한다. 과학적으로 배치된 인력들이 쓸데없는 예의나 허식, 위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엄수의 근면과 인권옹호의 보건과 자립생활의 검약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민생알미눔제조소에는 애국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 보장이라는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애국자의 유가족을 도우시려는 성의에는 저도 만강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것과는 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점만은 단념해 주십시오!』 (중략)

『애국자의 유가족도 모른다, 정치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공산분자가 아니고 뭐란 말이요..』 (중략)

『알았습니다.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거나, 그것은 나의 관여할바 아닙니다마는, 이 방에서만은 나가 주십시오!』 (86-87)

8) 봉건적인 의식이나 행위에 대한 영란의 비판은 배영환뿐 아니라 박재하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하겠다.

9) 자신과 적대하는 존재를 공산도배로 몰아가는 부정적인 인간형은 정비석의 『세기의 중』이나 『슬픈 목가』 등에서도 등장한다. 『세기의 중』에서 한양종합병원 총무과장 남재호는 자신에게 불평을 품는 행위를 공산주의자의 행위로 몰아붙인다. “남을 간단히 매장하는 데는 그 이상 좋은 수단이 없”[정비석(1954), 『세기의 중』, 세문사, pp. 124-125]는 빨갱이 매도는 당대 현실을 이용해 이기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혐오를 보여준다.

민생알미늄제작소의 논리에서 보면 자립과 자주, 근면과 공정의 가치와 무관한 애국자의 세계란 존경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과학적 배치에 따른 인력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리매나 공산주의자의 행태로 간주되는 위태로운 것이다. 박재하의 외부 논리의 틈입을 막기 위해 그들을 ‘이 방에서만’ 축출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른 공간으로서 민생알미늄제작소의 성격이 현실 정치질서와 부딪칠 때 서사는 박재하의 고난을 그리는 동시에 구성원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서사를 보여줌으로써 민생알미늄제작소 구성원 모두의 주인의식을 환기한다.

강영란은 민생알미늄제작소의 논리에 동화해 그 구성원으로서 부정적인 현실세계를 공격하고 혐오하며 ‘민주어족’으로 성장해간다.

영란은 자기가 어제까지 살고있던 세상과는 전연 별개의 세상을 오늘에서 발견한 것만 같았다. 어제까지 살고 있던 세상은 허영과 허식과 허욕과 기만과 협잡과 간악이 뒤범벅을 이루고 있는 혼탁의 세계였다. (중략) 영란은 「민주주의가 여기에 있었구나!」하는 감명이 절실하였다.(81)

현실의 허영, 허식, 허욕과 기만, 협잡과 간악, “쓸데없는 예절”(81) 같은 것이 틈입하지 않는, “세속적인 예의범절을 초월한 행동”(81)과 실천, 다른 규칙과 다른 가치관, 다른 행동과 다른 목표를 나타내는 공간에서 영란은 참된 민주주의를 발견한다. 그 속에서 영란은 교양 있는 건실한 직업인으로 성장한다. “하루의 근무를 깨끗이 끝마치고 퇴근하는 기쁨이란 말할 수 없는 상쾌감이었다.”(95) 직업인으로서의 노동가치와 자부심을 드러내는 영란의 면모는, 『여성전선』에서 윤옥란이 비서이자 타이피스트, 영문 통역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점과 대비된다. 『여성전

선』의 윤옥란은 “비서에 영문통역을 겸한”(9) 능력 있는 여성이지만 그녀의 영어 실력이나 타이핑 능력은 서사에서 부각되지 않으며 그녀에게는 업무능력이 아니라 미모가 더 중요한 자질로 자리한다.

『여섯신데 나올 수 있겠죠? 윤군도 참석해서 우리 회사에는 윤군 같은 미인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자랑해 봅시다. 그러. 하하하……』
(중략)

『미인계라면 예쁜 기생들이 얼마든지 있으실텐데, 왜 그러세요』
『기생은 기생대로 좋을지 모르나, 실례의 말이지만, 윤군만치 아름다운 기생도 없으려니와 대체로 기생들은 신선미가 없어서……』¹⁰⁾

비서이자 영문통역으로서의 역량 대신에 윤옥란은 “일본서 건너온 무역관계 친구들을 초대하”(18)는 자리에 기생처럼 미인계로 동원된다. 윤옥란이 전문 능력에도 불구하고 젊음과 미모만 부각되는 반면 『민주어족』의 강영란은 회계장부 대조라는 사무원의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노동에서 참된 기쁨을 누린다. 이는 민생알미눔제작소라는 생산 중심 보정의 헤테로토피아의 논리와 윤리에 따른 것이다. 민생알미눔제작소는 혼탁한 정치 경제적 상황, 관료들의 뿌리 깊은 권위의식과 일상에 투입한 부정부패의 협잡,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생활 난맥상과 속물성에 대비되는 생산과 민주사회의 이상으로서 다른 공간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모자아파트: 여성 혐오와 위기의 헤테로토피아

민생알미눔제작소라는 생산기구, 보정의 헤테로토피아가 당대 정치

10) 정비석(1952),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p. 18.

경제 현실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혐오로부터 그려진다면, 모자아파트는 타락하기 쉬운 여성의 육체에 대한 혐오로부터, 미망인의 육체에 대한 금지의 장소로서 설정된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소설에서 박재하나 오창준 등 중년 가부장의 시선은 먼저 김은애를 통해 여성의 방종과 타락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 변호사 오창준의 부인 김은애는 자식과 가정을 팽개치고 계와 댄스에 빠져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물이다. “그는 어린아이를 둘이나 가진 가정부인이건만, 몸에 감은 치마저고리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였다.”(46) 애인을 거느리고 경마에 돈을 날리는 김은애의 타락한 육체에 대한 혐오는 그와 다른 존재로서 미망인 강영희의 모습을 부각한다. 소설은 직업인의 발랄함을 구가하는 강영란, 방종한 향락을 추구하는 중년여성 김은애와 대비되는 자리에 애수로 채워진 미망인 강영희의 모습을 봉건적인 수동성과 금욕적인 태도로 집약해 보이면서, “과부 바람 나기 예산데, 바람을 좀 내기루 어떻수? 그것두 다 자선사업이러는”¹¹⁾ 당대의 부정적인 인식과 육체적 위기에서 미망인을 구원하고 돌보는 공간으로서 모자 아파트라는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한다.

『민주어족』에서 제시되는 미망인 강영희의 표상은 이전 『여성전선』이나 『세기의 종』에서 제시된 근대적이고 주체적인 미망인상과 구분된다. 『여성전선』에서 한보영은 “언제나 껌정 비로오드 긴치마에 껌정 양단저고리를 입”¹²⁾고 ‘젊은 미망인’을 상술로 내세우며 암전하면서도 ‘상당한 정열가’로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피난지 부산에서 다방을 경영하며 자립할 뿐 아니라 주체적인 의지로 재혼하는 미망인 한보영과 달리 『민주어족』에서 미망인 강영희는 어린자식을 데리고 시가의 원조에 기대 살아가다 축출당하고 자식까지 뺏긴 채 재혼하게 되는 수동적이고 봉건적인 면모를 나타낸다.¹³⁾ 그녀의 행동에는 『여

11) 정비석(1954), 『세기의 종』, 세문사, p. 84.

12) 정비석(1952),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p. 61.

성전선』의 한보영이 보여주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보영이 “일부종신이라는 케케묵은 도덕에 구애되어 일생을 헛되이 보낼 생각은 꿈에도 없지만, 그렇다고 남의 첩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었다. 결혼을 하면 정정당당하게 개가할 각오”¹⁴⁾로 다방을 경영하면서 경제적 이윤을 얻고 정식 재혼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민주어족』의 강영희는 어떤 변화도 주체적으로 이루지 않는다. 미망인 여성의 이러한 수동성과 봉건성에 대한 강조는 곧 그녀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해 특정한 공간에 귀속시킴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는 존재로 구성하는 것이다.

타락하기 쉬운 육체와 대조되는 자리에 봉건적인 강영희를 위치시키고 그녀를 모자아파트의 관리인으로 내세움으로써 그 공간은 성격으로 방종한 위험한 미망인의 세계와 대립하는 윤리적인 돌봄과 보호의 공간으로 이상화한다.

오창준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입주자는 열일곱 세대인데, 모두가 전쟁미망인이 아니면 납치미망인이라는 것이었다. 방세는 보증금 없이 한달에 이천환 균일이고, 입주 자격은, 아이를 가진 미망인으로, 반드시 직업여성이라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입주자의 직업은, 학교교원, 미용사, 화장품장사, 회사원 등등…… 천태만상이라고 한다.(135)

오창준이 경영하는 모자아파트는 “어린 아이 가진 미망인으로서, 집 없는 사람들만이 들어 살도록 되어 있는 아파아트”(31)로, 전쟁미

13) 정비석의 여러 소설에서 미망인의 성욕은 거침없이 묘사되지만(『여성전선, 『세기의 종』, 『유혹의 강』 등) 『민주어족』의 강영희는 성욕조차 보이지 않는다. 시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미망인의 모습은 『유혹의 강』(1958)의 주인공 최선애로 이어진다.

14) 정비석(1952),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p. 70.

망인, 납치미망인과 그 자식들의 보호를 위한 수용소이자 자활 공간인 동시에 양육 공간이다. 적은 방세를 받고 육아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자아파트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나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요보호 시설의 면모를 보인다.¹⁵⁾ 요보호 시설로서 모자아파트는 당시 미망인이 점령의 대상이 되는 위험한 육체이자 고아나 부랑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 벌거벗은 생명으로서¹⁶⁾ 구제의 대상이었음을 돌아보게 한다.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 점에서 모자아파트는 남성 가부장의 윤리가 여성의 일탈을 막고 위기를 관리하는 공간,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을 아니 가진 미망인이란 자칫하면 타락하기가 일수고,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한숨만 쉬어서 주의의 분위기까지 슬프게 만들 우려성이 다분이 있으니까”(135) 직업을 가진 미망인만을 수용하는 아파트의 조건은 타락하기 쉬운 미망인의 정조와 육체에 대한 남성 가부장의 보호 또는 규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더구나 입주 미망인의 직업이 교원이나 미용사, 회사원이라는 것은 다방 마담 같이 현실의 많은 미망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직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타락한 미망인에 대한 혐오에 대항배치되는 윤리의 공간이자 위기의 보호소로서 모자아파트의 성격을 집약해 보인다. 중년 가부장 오창준은 모자아파트를 경영함으로써 미망인의 윤리적 구원자로 자리한다. 그는 “불행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사업인데, 구속이 무슨 구속이야.

15) 1950년대 모자원은 가족단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비혈연 집단기구와는 다르지만 이 역시 생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부랑아 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가족 해체를 대변하는 구호기관이었다. 김은경(2008),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pp. 58-60 참고.

16) 벌거벗은 생명은 살해는 가능하되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생명, 즉 호모 사케르의 생명이다. 호모 사케르란 쫓겨난, 터부시되는, 위험스러운 자이다. 조르조 아감벤(2008),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참고. 50년대 정비석의 소설에서 미망인의 육체는 누구나 유혹하고 점령할 수 있되 그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유혹적이며 위험한 대상으로서 호모 사케르이다.

사생활에는 일체 간섭을 아니”(135)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상 아파트에 구속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밤 아홉시 이후에만은 남자 출입을 금지하고 있”(136)다는, 즉 미망인의 육체관계를 금지하는 규율이 강요되는 것이다.

『나는 돈을 모을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니까…… 다만 나의 소원은, 불행한 사람들을 어떡하면 단 한사람이라도 건실하게 살아가게 지도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 뿐이야. (중략)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도 사회의 지도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행복스럽게 살아갈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정신적 영향은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136-137)

오창준은 모자아파트 사업이 영리가 아니라 미망인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단언한다. 이런 인식에서 아파트 거주 미망인들은 일방적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그들의 삶은 아파트의 보호가 없으면 건실할 수 없는 것으로 매도되고 만다. 왜 교사나 회사원인 미망인들이 중년남성 오창준의 보호를 받아야만 건실할 수 있으며, 입주 아파트에서조차 불행하고 불건전한 사람으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사회의 지도’, 곧 남성의 윤리와 금기가 부여되어야만 하는 존재인가. 모자아파트는 여성의 욕망을 제어하는 남성 가부장의 규율과 윤리로 채워진다. 아내 김은애의 육체를 혐오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오창준은 사회적으로 미망인을 보호하고 규율하는 ‘다른 공간’의 지도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중년남성 오창준이 그다지 윤리적 주체도 아닌 것이, 그는 강영희와 “첫사랑의 관계까지 있”(25)었으나 세도가의 딸 김은애의 유혹 때문에 영희를 배신한 남성이다. “오창준은 우연한 기회에 지

금 마누라인 김은애라는 여성을 알게 되어, 어느날 밤 그의 집에 놀러 갔다가 본의 아닌 육체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그와 결혼을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30) 강영희와 오창준의 관계는 남성의 배신으로 헤어진 연인이 재회한 것이지만, 서사는 그들의 결합을 미망인 여성의 위험한 육체와 슬픔에 대한 남성의 지도와 보호, 구원으로 왜곡한다. 애인을 배신한 오창준이 아니라 그를 유혹한 김은애를 악인으로 만듦으로써 소설은 오창준의 윤리를 긍정하고 그가 경영하는 모자아파트-미망인 보호소란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가정을 부인하고 남편을 모르고, 자식을 잃고…… (중략) 아내처럼 그릇된 신사조의 희생물이 되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봉건시대의 부덕(婦德)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싶었다. 그가 강영희미망인의 전형적인 봉건부덕에 끝없는 아름다움과 연모를 느끼는것도 그때문이었다.(307-308)

소극적이고 봉건적인 부덕으로 집약되는 미망인 강영희는 타락한 여성의 욕망이 전시되는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채 중년 가부장의 규율에 지배되는 위기의 헤테로토피아 속에서 성장(변모)한다. 봉건사회의 윤리와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그녀는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돌봄을 구현한다. 타락하고 방종한 여성의 위험한 육체가 전시되는 현실과 다른, 가부장의 규율과 윤리가 지배함으로써 돌봄과 보호가 이루어지는 미망인 수용소이자 위기의 헤테로토피아 모자아파트의 성격이 가정으로 이어질 때 오창준과 강영희가 구성하는 재혼 가정은 이상화된다. 그런데 그 재혼가정에 오창준의 아이들은 허용되지만 영희의 아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 공간이 누구에게 낙원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모자아파트와 재혼 가정이 여성에게 봉건적인 윤리와 희생을 요

구하는 공간이란 점은, 오창준이나 박재하 같은 중년남성의 윤리에 입각한 ‘다른 공간’으로서 민생알미늄제작소나 모자아파트의 성격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그 공간은 부정부패와 나태가 횡행하고 타락한 여성의 성욕이 전시되는 50년대 현실과 분리된 다른 공간이지만, 과연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낙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주어질 때, 이성에 입각한 애정을 요구하는 강영란의 목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적인 배우자와의 결혼이라는 결말에 있어서는 영희와 영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그들 가정이 가진 성격은 다소 다른데, 영희와 오창준이 구성하는 중산층 가부장제 가정이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생활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영란과 홍병선이 구성하는 다른 공간으로서의 가정은 기술개발과 자립이라는 공적 목표를 중심으로 한 생산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이고 봉건적인 미망인 영희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직업인 영란의 차이와 관련된다. 영희에게 일이란 자아를 추구하는 행위이기보다 “그리운 이의 사업을 돕는다는 것이 저렇게나 즐거운 일”(251)로 자리한다. 즉 사랑하는 대상의 일이기에 그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정성을 다한다. 이와 달리 영란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 이전에 그의 일이 자리한다.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업열을 가졌는지와 그의 일이 얼마나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등을 따진 이후에야 그는 자신의 동반자로서 남성을 사랑한다. 이러한 영란의 적극성과 주체성은 영희와의 대조를 통해 중년 가부장의 윤리와 논리에 따른 민생알미늄제작소나 모자아파트와 다른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주식회사: 중년남성의 봉건성과 청년의 헤테로토피아

의존적이고 불평등한 정치 경제 현실에 대한 혐오로부터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민생알미늄제작소라는 자립 생산기구가 제시되고, 위험한 여성의 육체, 미망인-자유부인에 대한 혐오로부터 여성의 육체를 보호하고 돌보는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모자 아파트라는 요보호 시설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민주어족』은 박재하와 오창준 등 중년남성의 욕망을 서사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들이 구축하는 세계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다른 목소리와 욕망이 후반부 서사에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후반부 서사에서 외부의 모함으로 박재하와 오창준이 검거되어 민생알미늄제작소와 모자아파트에 위기가 닥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강영란과 홍병선의 연애-결연이 서사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년남성 오창준과 박재하는 모두 연애나 결혼, 여성관에서 봉건성을 드러내며,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축출하려는 50년대 가부장의 욕망을 노출한다.¹⁷⁾ 오창준은 가정을 등한시하는 아내 김은애를 비판하면서 강영희가 구현하는 봉건 부덕을 고평한다. “여자의 행복이란 가정 이외의 곳에서는 있을수 없으려면, 가정 이외의 곳에는 있을 수 없는 행복을, 가정 이외의 곳에서 찾으려는 아내가 딱해 보였다.”(309) 오창준의 윤리적 포즈 이면에는 남녀평등을 부르짖더라도 여자는 여자로

17) 『자유부인』에서 사금용으로서 계를 비판하거나 여대생이나 직업여성의 방종을 비판하는 것처럼 정비석의 50년대 중후반 소설들은 가두에 진출한 여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드러낸다[이에 대해서는 최창근(2014), 「정비석의 『자유부인』과 남성 지식인의 불안」, 『호남문화연구』 56, 호남학연구원, pp. 130-131 참고]. 그러나 50년대 초반에 발표된 『여성전선』이나 『세기의 중』에서는 직업여성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나보령(2017), 「1950년대 ‘직업여성’담론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일과 결혼 — 정비석의 『여성전선』, 『세기의 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3, 송실대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이러한 변모는 50년대 후반 가부장제의 규율과 윤리가 강화되는 현실과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은 가정, 즉 여성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기적인 남성의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 이쪽에서 이혼을 제기하면 아내는 꽤히 승락해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혼을 하고나면 아내가 여지없이 타락해버릴 것만은 명확한 일이었다.”(318) 오창준은 아내를 성적으로 이미 타락한 존재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이혼하면 그녀가 여지없이 타락할 것이라는 모순된 논리를 내세운다. 이는 박재하가 강영란과의 사랑을 연애와 구분하며 윤리적인 중년남성을 연행하는 태도와 동일한 지점에서, 50년대 가부장제의 규율과 윤리가 가진 허위와 봉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안될 말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영란의 매력에 젖어서 안 된다!)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사태가 그렇게되고 보니, 이제는 일종의 고집이었다. 대장부의 위엄과 명예를 위해서도, 영란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일 시기가 도달하였다고 생각되었다.(388-389)

강영란의 발랄함과 미모, 젊음은 중년남성 박재하에게 위협한 유혹, 그의 윤리를 시험하는 악마성으로 자리한다. 실상 영란이 박재하를 유혹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에도 그는 영란에게 끌리는 감정을 죄악시하는 동시에 영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 것으로, 명예나 윤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경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박재하의 시련에 있어 영란은 일방적으로 원인이 되어버린다. “늦잠을 자게 된 원인이 오로지 영란에게 있었던 것만 같아, 어젯밤 일이 후회스럽기 짝이 없었다.”(394) 박재하는 영란을 생각하다 늦잠을 자게 된 까닭에 중요 인사와의 약속에 늦게 되고 그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증상모략에 대비하지 못한다. 그는 이 모든 시련을 자신이 아닌 영란 때문으

로 돌리고, 영란에게 애정을 느끼는 데서 오는 문제를 그녀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바꿔버린다. 아름다운 여성은 아름답기에 남성을 홀려 파멸시킨다는 가부장제의 마녀 공리가 개진하는 것이다. 이면의 욕망을 억압하고 도덕을 연행하는 포즈를 통해 박재하는 대장부라는 지위, 남성의 윤리를 획득한다.

『나는 아까 그 영화를 구경하면서, 남자주인공의 열렬한 정열에는 감동을 마지 않았지만, (중략) 사십대의 연애란, 인생에 대한 공감이나 자연적으로 사랑에까지 발전하는 사랑, 이를테면 그런 건설적인 연애라야만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그러기에 사십을 넘은 남자가 사랑을 위해 사업을 버린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말야. (중략) 그릇된 신념으로 일생을 망치고 나서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는지 모르거든!』(282-283)

박재하는 중년남성의 연애가 건설적이어야 함을 강변한다. 40대 남성의 연애는 “사업이라는 것이 곧 인생”(283)인 일상을 위협하거나 사회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⁸⁾ 연애 때문에 파멸하거나 비난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대장부의 위엄과 명예’를 내세우고 ‘사십 넘은 남자’의 사업욕을 강조하며 여성의 존재와 욕망을 비하하거나 억압한다. 이후 박재하의 모습이 서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가 가진 이중적 면모, 즉 표면에서는 부정 부패가 횡행하고 평등과 자유가 몰각된 현실에 비판적이면서도 이면에서는 가부장제의 규율에 순응해 개인의 욕망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이중성 때문이라

18) 류경동은 『자유부인』과 『민주어족』에서 성애가 배제된 세대간 연애가 대부분 미수에 그치며 계몽의 기능만 나타내는 것이 정비석 소설 나름의 윤리적 감각 때문이라고 본다. 류경동(2015), 「1950년대 정비석의 신문소설에 나타난 ‘연애’ 연구」, 『어문논집』 76, 민족어문학회, pp. 109-112면 참고.

고 할 수 있다. 그의 윤리는 개개인의 평등한 인권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구현하지만 가부장제의 규율에 따른 성적 억압과 차별을 받아 들인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그렇게, 일일이 이론적으로 따지시는 것을 보면 선생님은 연애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영란은 거의 절망적인 어조로 말하였다.
 『그렇까?…… 그럴는지도 모르지. 나같은 사람은 그런 방면에는 지독히 봉건적이니까!』(284)

박재하는 욕망과 연애에 봉건적임을 자인한다. 자유로운 연애가 민주 사회의 신념에 배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년남성의 윤리를 과도하게 연행함으로써 봉건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봉건성은 위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그는 대장부의 위신을 위해 영란의 유혹을 물리치지만 그것이 위선임을 시인한다. “영란의 말대로, 나는 철저한 위선자였던가 보구나.”(403) 사내대장부로서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의 존재를 떨쳐내는 서사가 박재하의 내면에서 씌어질 때, 여성의 주체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년남성 오창준과 박재하의 모습은 당대 사회의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자립경제와 약자 돌봄의 윤리성을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남녀관계에 관해서만큼은 봉건적인 모순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아니라 강영란-홍병선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연애가 봉건성을 벗어난 지점에서 가치매김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영란은 중년남성의 위선적인 윤리 연행에 “자신을 기만해 가면서까지 위선자의 가면을 쓰실 필요가 어디 있으세요?”(400)라고 비판한다. 위선의 가면이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문제제기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다. 그녀의 이성적인 태도와 욕망에 대한 주체

성은 그녀가 앞으로 흥병선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성과 주체성을 유지해 갈 것을 추측케 한다. 강영란-흥병선이 중심이 되는 후반부 서사는 오창준과 박재하의 봉건성이 가진 한계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가정이나 민생알미눔제작소의 규율에서 일정한 변화를 노정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의 결혼이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보다,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중략) 그들은 결혼이 불행했을 때에는, 축첩으로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내를 맘대로 쫓아버리고, 활개를 치면서 재취를 한다. 불행에 울어야 하는 사람은 오직 여성 뿐이었다. 거기에 사회의 모순이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커다란 애로도 거기에 있는 상 싶었다.(214-215)

영란은 당대 가부장제가 여성에게만 불행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비판한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남성은 축첩하거나 아내를 축출하는 폭력을 자행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반면 한번 결혼한 여성은 욕망을 추구하면 악녀의 호명을 듣고 비난받는다. 이러한 가부장제 현실에서 영란이 봉건성을 과시하는 중년의 박재하가 아니라 어리고 순수한 청년 흥병선과 결혼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주체성을 돌아보게 한다. <작가의 말>에서 정비석은 “信念을 가지고 自己自身을 忠實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民主魚族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보았다.”¹⁹⁾고 창작의도를 밝히고 있다. 소설에서 직접 민주어족의 호명을 받는 존재는 박재하나 오창준이 아니라 20대 직업여성 강영란이다. “상대방이 사장이거나 누구거나,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려는 것이 평소의 생활신조”(18)로,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욕망을 밝히고 서사의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영란은 영원한 민주어족”(504)이다. 그녀는 금욕적인 윤리에 집착하는 고루한 존재가

19) 정비석(1955), 「작가의 말」, 『민주어족』, 정음사.

아니며 그녀가 받아들이는 현실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민생알미눔제작소는 댄스나 데이트, 도심 산책이나 연애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건 배선생의 인식부족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한계급만이 댄스를 하고 있으니깐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실상 댄스라는 것은 근로대중의 레크류우손(健全娛樂)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하루의 근무에 충신했던 사람들이 그 날 하루의 피로를 푸는 동시에, 내일의 활동을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서 댄스를 한다면 그것은 퇴폐적이 아니라, 크게 건설적일 거예요. 그런 의미의 댄스라면 얼마든지 장려해도 좋을 거예요.』(124)

그녀는 표면적으로 오창준 같은 중년남성의 논리에 동조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김은애와 다른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실상 서사에서 그녀는 김은애와 마찬가지로 배영화과의 데이트를 즐기고 흥병선을 조롱하는가 하면 가두에서의 산책과 댄스도 즐긴다. 표면으로는 가부장제의 윤리에 저항하지 않는 얌전한 처녀의 가면을 쓰지만, 봉건적 윤리를 구현하는 박재하의 위선을 논파함으로써 욕망에 솔직하고 공적 책무에 성실한 주체적인 여성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직분윤리와 근검절약만 강조하는 엄숙하고 고루한 박재하와 달리, 영란이 받아들이는 민생알미눔제작소의 논리에서 댄스는 유한계급의 퇴폐적인 유희나 오락이 아니라 근로대중의 건전오락으로 긍정된다. 라디오체조가 보건위생을 이유로 강제되는 활동인 반면 댄스는 자발적인 여가활동이라는 점에서, 중년남성 박재하의 엄숙성과 봉건성에 대비되는 청년여성 강영란의 발랄함과 근대성을 집약해 보인다. 댄스를 즐기는 강영란의 시선이 투입함으로써 민생알미눔제작소라는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는, 박재하가 조직한 구도로 기계처럼 돌아가는 생산의 공간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의식의 공간으로 변화해 간

다. 이처럼 강영란의 주체성은 박재하의 고루한 성윤리, 근엄하고 엄숙한 가부장의 포즈와 부딪히는 가운데 자신만의 윤리와 논리를 획득하며 성장서사를 완성한다. 청년 초심자의 위치에서 박재하와의 연애를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며 영란은 “애정에는 실패했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지고 싶지 않”(247)다는 의욕 가운데 그의 봉건성과 고루함을 지적하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욕망과 윤리를 긍정해간다.

그러나 영란은 자기 행동을 조금도 뉘우치지지는 않았다. 비록 참패는 했을망정 최후의 일순까지 사랑에 용감했던 것은 청춘의 자랑이라고 생각되었다.

영란은 박재하를 원망하고 있지도 않았다. 사업을 위하여 사랑을 버린다는 것이 몹시 봉건적인 생각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405)

박재하에 대한 사랑을 용감한 청춘의 자랑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몹시 봉건적인 생각’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영란의 행위는, 자신의 행동을 청춘에 의한 것으로, 박재하의 행동을 봉건적인 것으로 가르며 중년남성의 윤리와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 가부장제와 구분되는 지점에서 청년의 헤테로토피아를 구축해간다.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어떤 결과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요는 자기자신에 대한 신념이 필요한 것이다.”(477) 그런데 그녀의 이러한 신념은 어떤 면에서 박재하의 엄숙한 봉건성이 아니라 김은애나 장현옥의 욕망과 겹쳐지기에 문제적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과 중년남성의 위선에 대한 비판, 자기 행동에 대한 자신과 책임의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김은애나 장현옥의 욕망과 강영란의 욕망은 그리 거리가 멀지 않은 것이다.

중년여성 김은애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현모양처를 요구하는 가부장제의 논리를 조롱한다. 그녀는 남편 오창준이 강영희에게 연정

을 품고 있음을 알면서도 질투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만큼 남편의 욕망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오창준의 폭력에 저항하며 남성의 윤리가 가진 모순을 공격한다. 공적 활동을 막고 가정애의 충실만 요구하는 가부장의 행태에 맞서 그녀는 자유롭게 거리를 확보하고 이혼을 요구한다. 봉건적인 중년남성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신념에 따라 살아간다는 점에서 김은애는 강영란과 겹쳐진다. “겉으로는 허랑방탕한 듯 하면서도 정작 잇속만은 제대로 차리고”(191) 살아가는 그녀는 껌돈을 모으고 타는데 알뜰한 방식으로 독립적인 자본력을 갖춘다. 영리하게 경제력을 갖추면서 욕망 추구에 당당한 존재로서 김은애는 서사의 끝까지 남편 오창준의 예상과 달리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않는다. 또한 김은애와 마찬가지로 신념에 따라 자유를 추구하고 유혹하는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사무원 장현옥은 남성의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얼핏 유혹의 피해자로 보이지만 사실상 남성의 욕망을 조롱하는 향유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아무래도 좋아요! 사람이란 자기 자신만 엔조이했으면, 결과는 아무래도 마찬가지로니까요!』

장현옥은 달관한 소리를 하면서 사내를 선선히 맞이하였다. 이번 승부에는 배영환이가 완전히 굴욕을 당한 셈이었다.(350)

현실 가부장제의 목소리를 빌어 배영환은 자유를 구가하는 김은애를 매춘부로 몰아붙이거나 자신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는 장현옥을 ‘개고기’라고 모욕하지만 그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 장현옥에는 유효할 따름이다. ‘자기 자신만 엔조이했으면’ 그만이라는 장현옥의 태도는 곧 자신의 신념에 따라 욕망을 즐기고 유혹에 응하며 삶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으로, 그는 결코 남성에게 희생되거나 굴복되지 않는다.

김은애나 장현옥은 남성의 유치한 유혹의 희생양이 되는 대신에 스스로를 적극적인 엔조이의 행위에 던져 넣으며 주체로서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거나 향락을 주장한다.²⁰⁾ 이처럼 소설에서 장현옥과 김은애는 강영란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실패자, 가부장제의 희생양, 연애의 피해자 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인물들이다. 주체적인 욕망을 향유하는 존재로서 그들은 봉건적인 중년남성의 위선에 공격을 가하고 가부장제의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다. “옛날과 달라서 현대여성들은 자기행복만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전취(戰取)해야 하리라고 생각해요!” (364)라는 강영란의 주장처럼, 여성의 행복 추구를 어머니의 의무 이전에 강조함으로써 그들은 모성애와 현모양처를 요구하는 봉건 가부장의 윤리에서 멀어진다. 이처럼 소설에서 강영란의 위치는 봉건적인 부덕에 귀착된 강영희나 그러한 강영희의 세계를 요구하는 중년남성 오창준, 박재하 등과 갈라지며 새로운 여성으로서 주체성과 자율성, 선택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강영란은 흥병선과 결합한다. 그들의 결합은 언뜻 여성의 교환을 통해 박재하와 흥병선 간 남성연대, 동성사회성이 강화되는 듯이 보인다.²¹⁾ 즉 서사에서 박재하는 흥병선이 관심을 갖

20)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주체적인 여성은 50년대 초 정비석 소설에 자주 나타난다(『세기의 종』의 안혜옥과 장선희, 『여성전선』의 한보영과 윤옥란 등). 그러나 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여성의 표상은 약해지고 『유혹의 강』이나 『슬픈 목가』 등에서는 그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서사화된다.

21) 손혜민은 자본주의 남성주체 구성과정에서 여성이 성애화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임을 비판한다. 손혜민, 앞의 논문 참고. 또한 허운은 『민주어족』의 민주주의가 형제애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민생알미늄공장이 청년-남성-산업전사라는 젠더 분할선을 통해 여성을 타자화하고, 영웅화한 남성 연대를 보여준다고 본다. 허운(2014),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pp. 120-127 참고. 본고는 이러한 논의들에 동의하는 한편, 남성연대가 여성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넘어 여성의 욕망이 남성 연대에 균열을 낼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강영란-흥병선의 결합을 긍정함으로써 여성 주체성에 대한 의미부여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며 홍병선에게 강영란을 양도하는 동성사회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동성사회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바탕으로 둔다는 점을 돌아볼 때²²⁾, 홍병선과 강영란의 결합에 박재하나 오창준 등 중년남성의 역할이 작용하는가를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소설에서 강영란은 홍병선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박재하나 오창준의 요구를 거부하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그와 결합한다. “어디까지나 자력투쟁을 하겠다 말이군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나서서 것은 단념할 테니 누가 못견디나 흥군하고 빨리 빠지도록 싸워보아요!”(484) 그들은 다른 사람의 중개를 거부하고 서로의 실력을 증명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맺어진다. 다시 말해 강영란과 홍병선의 결합이란 박재하와 홍병선 사이에서 여성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영란의 분석과 판단이 봉건적인 박재하가 아니라 민주적인 홍병선을 선택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홍병선은 사무원으로서의 능란함과 지식 습득에 적극적인 면모, 발랄함과 섬세함을 갖춘 영란의 모습에 반하며 영란은 홍병선에게 “만약 박재하라는 「뺨 라운드」가 없다면 홍병선이란 청년이 과연 어느 정도의 활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406)를 발견함으로써 주체적으로 맺어진다.

영란은 홍병선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연구에 침착하고 세상물정을 정확히 비판하는 점으로 보면, 그는 사십대의 남성들처럼 노련한데가 있어보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애정문제를 말할 때에는 이십도 못된 소년처럼 유치해 보이는 일면도 있었다. 동생처럼 어리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인지 모르리라 싶었다.(301)

22) 우에노 치즈코는 남성의 동성사회성 형성에 있어 여성 혐오와 동성애 혐오가 작용함을 설명한다. 남성은 여성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공유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유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우에노 치즈코(2012), 나일동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참고.

홍병선은 일방적으로 어른 지도자의 자리를 점하는 박재하와 달리 영란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협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사에서 홍병선은 노련함과 유치함을 동시에 가진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한 존재이다. 강영란에게 있어 그는 기술자로서는 존경할 만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리다. 박재하가 구속된 후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성인 남성의 면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서사의 마지막까지도 영란이 그에게 느끼는 유치함이나 순수함은 지속된다. 여성의 존재를 악마화하고 혐오하는 박재하와 달리 홍병선은 여성 혐오를 공유하지 않으며 영란의 존재나 그와의 연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생처럼 어리게 느껴지는’ 홍병선과 영란의 결합은 그들이 구축하는 가정이나 작업장이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인 지도나 윤리가 아니라 대화와 토의, 토론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공간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중년남성의 여성 혐오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홍병선은 후반부 서사에서 영란과 함께 민생알미눔제작소를 청년의 헤테로토피아로 구축한다. “홍병선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사십전후의 사람으로, 모두가 백암선생의 문하생이라는”(293) 백암선생덕 모임에서 유일한 청년으로서 홍병선과 강영란은, 표면은 민주적이지만 이면의 봉건성을 자인하는 중년남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윤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지도자의 부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 변함없이 생산력을 발휘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그들은 기탄없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를 주인으로 부각시킨다. 그들은 민생알미눔제작소의 직원들을 ‘-군’으로 호명했던 박재하와 달리 ‘동지’로 호명한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447)으로 시작되는 홍병선의 연설은 “우리끼리 공장을 운영해 나가자면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을 것을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난관이 무서워서 우리들의 신성한 임무를 포기하

려는 사람은, 일백오십명의 우리 민생알미늄 동지들 중에는 한사람도 없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448)라는 동지의식의 고취로 이루어진다. 즉 홍병선과 강영란이 구축하는 주식회사 민생알미늄제작소에서는 모두가 사장의 직원이 아닌 동지이자 주인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중년남성 박재하가 구성했던 현실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민생알미늄제작소가 과학적 합리성과 성실성, 효율성으로 이루어진 생산 지향적인 세계라면, 홍병선이 주축이 되어 호명하는 공간은 모두가 동지의식으로 이어진 공동체이자 토론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세계이다. “그의 또 하나의 특색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반드시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천에 옮기는 점이였다. 그런 점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였다.”(492)

“사장이 검거되는 바람에 한동안 혼란을 일으켰으나, 칠팔일이 경과하면서부터는 완전히 질서가 유지되”(479)는 민생알미늄제작소는 지도자 한 사람의 통솔로 유지되는 공간에서 벗어나 전체 구성원의 토론으로 유지되는 주인의식의 ‘다른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이는 주식회사 전환으로 완성되는 민주적 주체의 공간이다.

이 민생알미늄은 내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략) 이 기회에 우리 공장을 주식회사로 조직하되, 총주권의 절반은 창설당시부터의 공로자 여러분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반부는 종업원 여러분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민생 알미늄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 갈수 있는 길을 강구하겠습니다.(506)

회사를 위해 희생, 헌신한 종업원 모두가 우리사주를 배당받아 회사의 주인이 되는 주식회사 민생알미늄제작소의 탄생, 이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담보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독재로 얼룩진 당대 정치현실에 대항하는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한다. 홍병선과 강영란은 이와 함께

청년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민주적인 가정을 일군다. “영란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결혼은, 관리의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니요, 군인이나 무역가나 예술가의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504) 이지적인 현대여성으로서 영란은 엔지니어를 남편으로 맞고자 한다. 이는 사실상 그 자신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된다. “일개 「엔지니어」의 아내로서 자기 자신도 남편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생산공장을 손수 운영해 나아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스러운 생활은 없을상 싶었다.”(504) 그녀는 언니 강영희처럼 현모양처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이상적인 결혼이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어우러진 생활로, 가정을 경영하듯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녀가 이상적 남성의 자질로 사업능력을 꼽은 이유도 공장운영의 욕망과 관련된다. 욕망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녀는 “영원한 민주어족”(504)의 호명을 받는다. 이처럼 『민주어족』이 지향하는 청년의 헤테로토피아는 당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 혐오와 여성 혐오에서 비롯해 현실에 대항하는 공간인 민생알미늄제작소나 모자아파트, 즉 중년남성의 윤리와 논리가 구축하는 공간과 일정하게 변별된다. 그것은 ‘민주어족’으로 호명되는 청년의 성장과 주인의식,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주체적인 결연에 입각한 세계라는 점에서 가부장제의 현실에 일정하게 대항 배치된 공간이 되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정비석의 『민주어족』에 나타난 정치혐오와 여성혐오를 분석하고 현실의 부정성에 대항하는 공간으로 기획되는 다른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민생

알미늄제작소는 의존적이고 불평등한 정치경제 현실에 대한 혐오로부터 과학적 배치와 능률적 조직으로 자립 생산을 향해 나아가는 직분윤리의 공간이다.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모자아파트는 타락하고 방종한 여성의 육체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그러한 혐의를 받는 대상인 미망인의 욕망과 육체를 보호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중년남성의 봉건적 윤리가 규율하는 공간이다. 이들 공간이 중년남성의 봉건성에 입각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면, 이들 공간과도 구분되는 지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입각한 청년의 헤테로토피아로서 주식회사와 청년들의 주체적인 결연이 후반부 서사에서 강조된다. 소설은 강영란이 중년남성 박재하의 윤리와 규율이 지배하는 헤테로토피아에서 일정하게 동화 또는 이반함으로써 ‘민주어족’으로 성장하는 서사를 나타낸다. 이는 소극적이고 봉건적인 미망인 강영희와 대조되는 가운데 오창준이나 박재하 등 중년남성의 봉건성을 문제시하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서 기술자 홍병선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민주어족’으로 호명되는 청년들은 신념에 따라 주체성을 발휘하며 동지의식에 기반해 생산의 일분자로서 자립하고 서로에게 평등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 당대의 부정부패, 무기력과 무능, 의존과 협잡, 타락과 방종의 세계에 대조되는 다른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소설에서 가부장의 봉건성을 나타내는 박재하, 오창준이 아니라 홍병선과 강영란을 민주어족으로 호명한다는 것은, 이들의 결합이 가부장제의 논리와 윤리와 같지 않음을, 다른 공간을 구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 정비석(1955), 『민주어족』, 정음사.
_____(1954), 『세기의 종』, 세문사.
_____(1952),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논 저】

- 장진호(2000), 「전후 세태와 소설의 존재방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3, 현대문학이론학회.
- 고선희(2016), 「정비석 소설의 섹슈얼리티와 전후의 자본주의적 주체 구성」, 『한국사상과 문화』 84,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은경(2008),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 나보령(2017), 「1950년대 ‘직업여성’담론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일과 결혼 — 정비석의 『여성전선』, 『세기의 종』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3, 숭실대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 류경동(2015), 「1950년대 정비석 소설에 나타난 소비주체의 향방 — 『자유부인』과 『민주어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31,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_____(2015), 「1950년대 정비석의 신문소설에 나타난 ‘연애’ 연구」, 『어문논집』 76, 민족어문학회.
- 손혜민(2014), 「전후 ‘근로대중’의 형성과 빈곤의 젠더화 — 정비석의 『민주어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2, 한국여성문학학회.
- 안미영(2004), 「정비석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고찰」, 『개신어문연구』 21, 개신어문학회.
- 이선미(2013), 「‘정치 혐오’의 문화적 기원과 신문소설의 여론 민주주의 — 1950년대 정비석의 신문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_____(2011), 「공론장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 1950년대 신문소설과 정비석」, 『대중서사연구』 26, 대중서사학회.

- 정종현(2008),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 1940-50년대 정비석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5,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 최창근(2014), 「정비석의 『자유부인』과 남성 지식인의 불안」, 『호남문화연구』 56, 호남학연구원.
- 허윤(2014),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 우에노 치즈코(2012), 나일동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 미셸 푸코(2014),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 조르조 아감벤(2008),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원고 접수일: 2021년 1월 6일

심사 완료일: 2021년 2월 2일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9일

ABSTRACT

A Narrative of Hatred and the Project
for Heterotopia at 1950s:
A Study about *A Democratic Race*

Kim, Jue-lee*

While reflecting the desire for reconstruction at 1950, Jeong, Bi-seok's *A Democratic Race* shows a project for 'another place' (heterotopia) which discriminated from the corrupted real world. As a counter place against the real, heterotopia is a utopia which exists the real world. The heterotopia in *A Democratic Race* is Minsaeng Aluminum factory and Moja apartment, which managed by middle-aged men. As a heterotopia for revision which set against the corrupted real, Minsaeng Aluminum factory shows the ideal for the self-supporting economy with rational posting and job morals. Moja apartment which set against the sexual corruption is a heterotopia for crisis in which the moral of patriarch forbids women deviation. These places show feudalism of middle-aged men and emphasize the rule of patriarchy. So the latter half of the novel criticizes the feudalism of middle-aged men and shows the heterotopia for the youth. The heterotopia for the youth in *A Democratic Race* is a counter place against

* Professor, Faculty of Humanities and Liberal Arts,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e real patriarchy because it gets a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women subjectivity.

